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3. 07. ~ 03. 13.

# 전남농업정보

75

VOL

## 주간 기상전망

##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3월 월동배추·무 가격동향 및 전망

##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신선농산물 인도 수출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단호박 무가운 하우스 연중생산 관리기술 매뉴얼 발간

· 단감 과수원 밑거름, 신경 쓴 만큼 '득' 된다!

## 정책동향

·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 사업추진

##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전반에는 조금 낮겠고, 후반에는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5mm)보다 적겠음

###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8

- 시설 채소작물의 병해충 주의보

###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9

- ▶ 3월 월동배추·무 가격동향 및 전망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개시
-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개최
- ▶ 보성군, 봄감자 일관파종기 중점지원
- ▶ 해남군,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 ▶ 함평군,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접수
- ▶ 장성군,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 학사농장에서 산다
- ▶ 완도군, 해풍 맞은 완도 비파 첫 수확
- ▶ 신안군, 「꾸찌뽕」 정지·전정 현장교육 실시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1

- ▶ 국산 신선농산물 인도 수출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 ▶ 국산 매향 딸기, 싱가포르로 선박 수출 성공
- ▶ NH무역, 농협쌀로 만든 즉석밥 '집밥' 첫 수출 개시

##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6

- ▶ 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연중생산 관리기술 매뉴얼 발간
- ▶ 단감 과수원 밀거름, 신경 쓴 만큼 '득'된다!
- ▶ 첨단 냉·난방 패키지 기술로 고온기·혹한기 극복한다
- ▶ 딸기 단동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현장 평가회
- ▶ 올 한해 딸기 농사 시작은 지금부터
- ▶ 양파 노균병균, 월동 후 제때 방제 중요
- ▶ 마늘썩 꺼낼 때, 저온피해 조심하세요

## ❁ 정책 동향 ..... 38

- ▶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 사업추진
- ▶ 농식품부,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코스 발굴

## ❁ 해외 농업정보 ..... 41

- ▶ 건조한 기후 탓에 우크라이나 2016/17년 밀 수확 20% 감소 전망
- ▶ 미국, 계란값 10년새 2배 이상 꺾충, '가계부에 주름살'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3.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 남부평야 밀지대의 건조한 기후로 인한 우려로 인해 숏커버링세가 몰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숏커버링세로 상승 여력이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밀과 대두의 공급 과잉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제한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숏커버링세와 기술적 매수시그널로 연일 상승하고 있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5

- ▶ 뚝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 소비자가 공감하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응모하세요!
- ▶ 영농철 앞두고 농기계 무료로 정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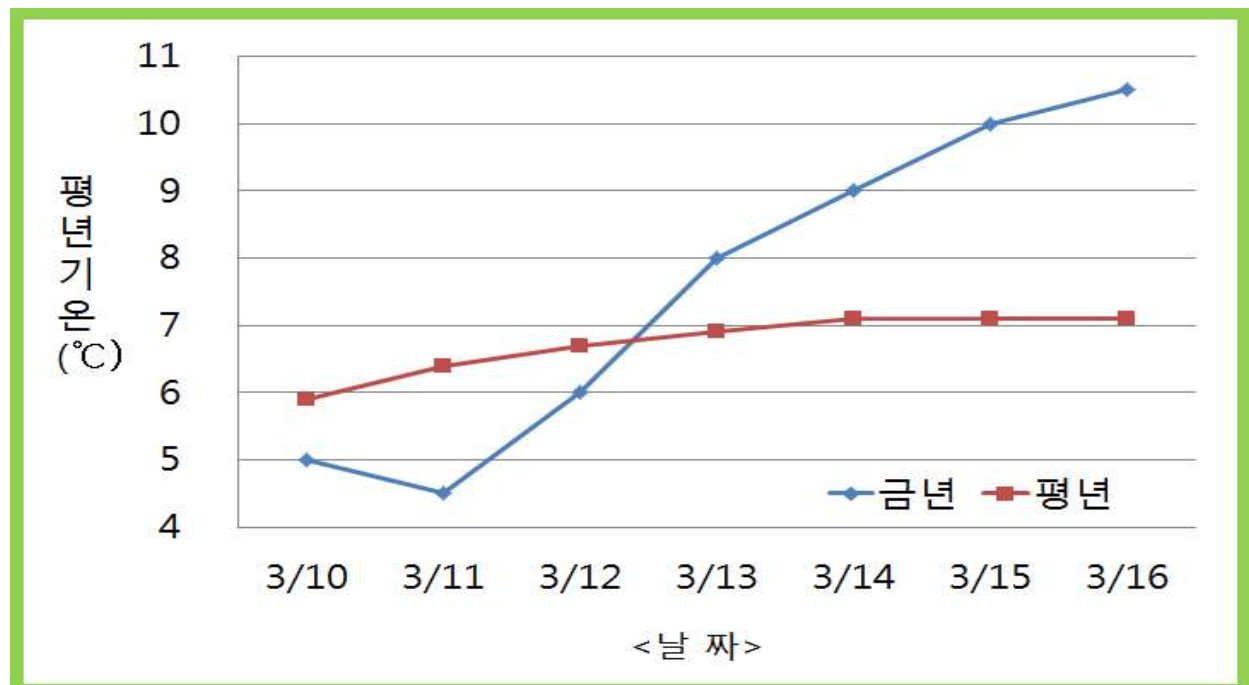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8.1	6.8	1.3	12.9	12.8	0.1	3.3	1.8	1.4	2.2
3. 10.(목)	5.0	5.9	-0.9	8.0	12.1	-4.1	2.0	0.9	1.1	1.2
3. 11.(금)	4.5	6.4	-1.9	9.0	12.6	-3.6	0.0	1.3	-1.3	1.4
3. 12.(토)	6.0	6.7	-0.7	11.0	12.8	-1.8	1.0	1.7	-0.7	1.9
3. 13.(일)	8.0	6.9	1.1	13.0	12.9	0.1	3.0	1.9	1.1	2.4
3. 14.(월)	9.0	7.1	1.9	14.0	12.9	1.1	4.0	2.2	1.8	2.5
3. 15.(화)	10.0	7.1	2.9	15.0	12.9	2.1	5.0	2.2	2.8	2.8
3. 16.(수)	10.5	7.1	3.4	16.0	12.8	3.2	5.0	2.2	2.8	2.8
3. 17.(목)	11.5	7.2	4.3	17.0	13.2	3.8	6.0	2.2	3.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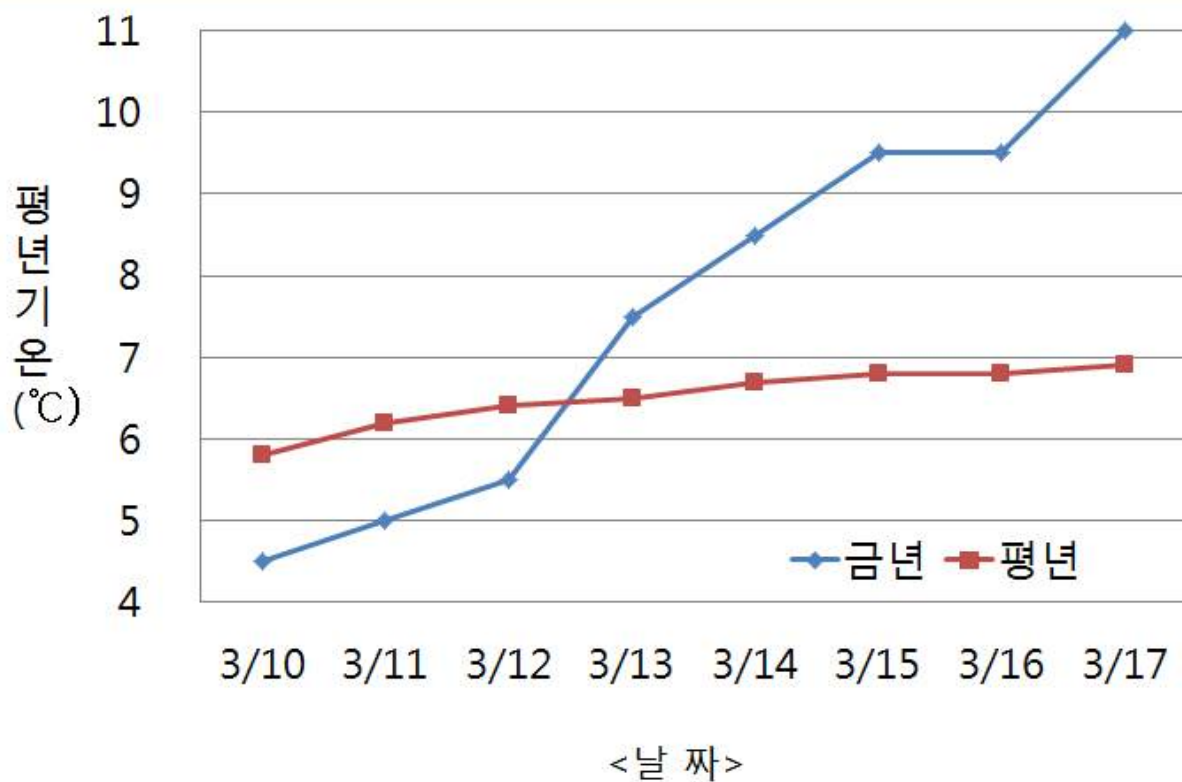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7.6	6.5	1.1	11.9	11.9	0.0	3.4	2.5	0.9	2.2
3. 10.(목)	4.5	5.8	-1.3	7.0	11.2	-4.2	2.0	1.7	0.3	1.1
3. 11.(금)	5.0	6.2	-1.2	9.0	11.6	-2.6	1.0	2.0	-1.0	1.4
3. 12.(토)	5.5	6.4	-0.9	10.0	11.8	-1.8	1.0	2.4	-1.4	1.9
3. 13.(일)	7.5	6.5	1.0	12.0	11.9	0.1	3.0	2.5	0.5	2.3
3. 14.(월)	8.5	6.7	1.8	13.0	12.0	1.0	4.0	2.8	1.2	2.5
3. 15.(화)	9.5	6.8	2.7	14.0	12.1	1.9	5.0	2.8	2.2	2.7
3. 16.(수)	9.5	6.8	2.7	14.0	12.0	2.0	5.0	2.9	2.1	3.0
3. 17.(목)	11.0	6.9	4.1	16.0	12.2	3.8	6.0	2.8	3.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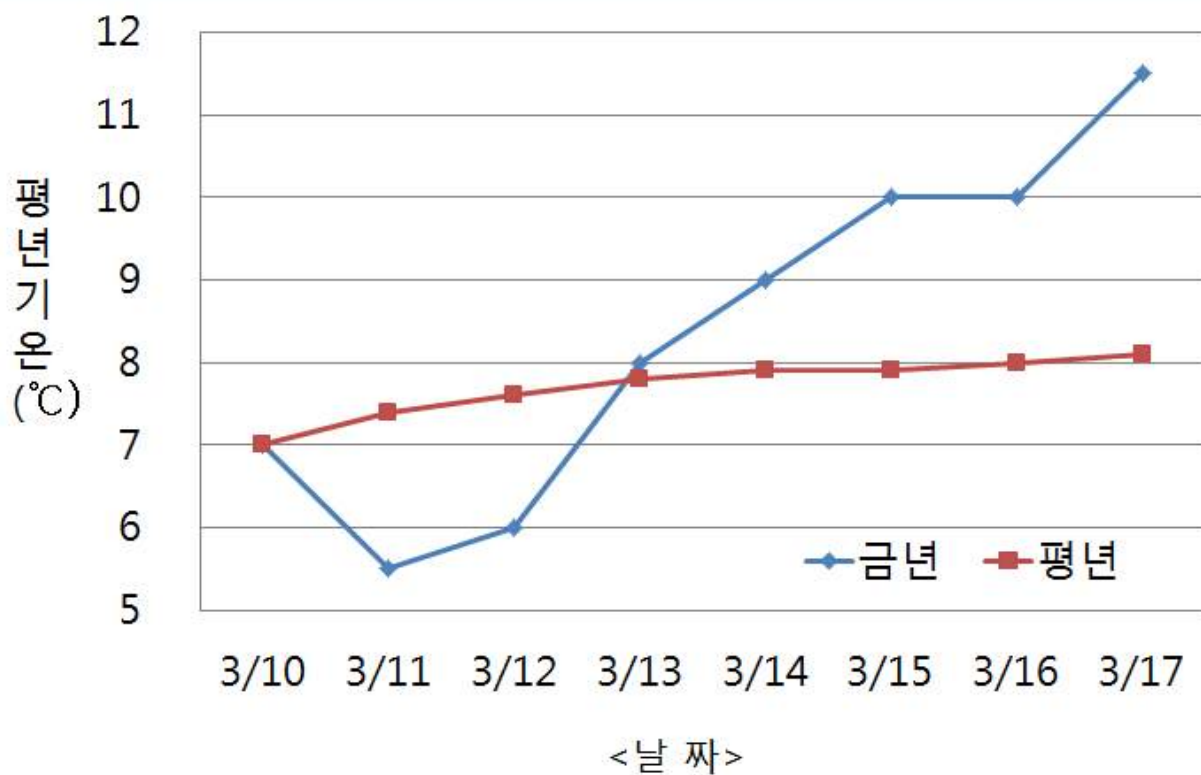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8.4	7.7	0.7	12.1	11.9	0.2	4.6	4.2	0.5	3.0
3. 10.(목)	7.0	7.0	0.0	9.0	11.3	-2.3	5.0	3.3	1.7	1.6
3. 11.(금)	5.5	7.4	-1.9	9.0	11.7	-2.7	2.0	3.7	-1.7	1.7
3. 12.(토)	6.0	7.6	-1.6	10.0	11.9	-1.9	2.0	4.0	-2.0	2.4
3. 13.(일)	8.0	7.8	0.2	12.0	11.9	0.1	4.0	4.3	-0.3	3.1
3. 14.(월)	9.0	7.9	1.1	13.0	12.0	1.0	5.0	4.4	0.6	3.5
3. 15.(화)	10.0	7.9	2.1	14.0	12.1	1.9	6.0	4.5	1.5	3.9
3. 16.(수)	10.0	8.0	2.0	14.0	12.1	1.9	6.0	4.5	1.5	4.2
3. 17.(목)	11.5	8.1	3.4	16.0	12.3	3.7	7.0	4.5	2.5	3.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제3호/2016.3.1.~3.31.)

농촌진흥청은 딸기·토마토·고추·오이 등 시설재배 작물과 마늘·양파·과수 등에 대한 3월 중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하오니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온실가루이, 진딧물류 : 주의보

- 딸기 등에 온실가루이, 오이 등에 목화진딧물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끈끈이 트랩으로 정밀 예찰을 하고 적용약제로 초기에 방제

### □ 시설 채소작물의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 예보

- 균형시비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보온과 환기로 병 발생을 억제하면서 병에 걸린 잎과 과실을 일찍 따주고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 □ 토마토황화잎말림병(담배가루이), 토마토반점위조병(총채벌레) : 예보

- 매개충인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 유입 차단 및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병에 걸린 식물은 즉시 제거

### □ 과수의 꼬마배나무이·복숭아씨살이좀벌·응애류 등 월동해충 : 예보

- 꼬마배나무이는 발생 밀도와 최적 방제시기에 따라 기계유유제를 살포하고, 매실의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낙화직후 침투이행성 약제 살포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3.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3월 월동배추·무 가격동향 및 전망

- 3월 월동배추·무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
  - 배추 가격은 월동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이 작년보다 35% 적어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10,000원/10kg 내외 전망
  - 무 가격은 월동무 산지 출하량이 작년보다 30%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13,000원/18kg 내외 전망
- 최근 높은 시세로 배추·무 봄작형 재배(의향)면적 증가
  - 시설봄배추·시설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45~82% 증가
  - 노지봄배추·노지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40% 증가
- 배추, 무 봄작형 재배(의향)면적 작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구 분		배 추	무
시 설	작년 대비	81.9	44.8
	평년 대비	-37.3	10.8
노 지	작년 대비	17.5	39.6
	평년 대비	-28.1	0.9
전 체	작년 대비	27.0	40.2
	평년 대비	-30.2	2.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3. 0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07)	1주일전 (02/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1,125	42,242	↓ 12.0	↓ 14.3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49,000	136,000	182,000	↑ 10.3	↓ 17.6
	고구마(밤)	10kg	27,200	26,800	27,500	27,400	27,413	↓ 0.7	↓ 0.8
	감자(수미)	20kg	32,600	31,000	31,000	34,600	30,280	↓ 5.8	↑ 7.7
채소류	배추(월동)	1kg	1,160	1,000	708	470	866	↑ 146.8	↑ 33.9
	양배추	10kg	7,300	6,100	7,050	6,225	8,202	↓ 17.3	↓ 11.0
	오이(다다기계통)	10kg	35,000	35,667	51,417	30,556	37,233	↓ 14.5	↓ -6.0
	애호박	8kg	26,600	25,600	39,050	24,550	27,640	↑ 8.4	↓ 3.8
	토마토	10kg	36,000	30,400	31,550	29,350	34,684	↑ 22.7	↑ 3.8
	당근	20kg	25,000	25,000	24,800	20,600	25,240	↑ 21.4	↓ 1.0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0,000	780,000	820,000	870,667	↓ 4.9	↓ 10.4
	풋고추	10kg	47,400	72,800	93,200	97,950	94,987	↓ 51.6	↓ 50.1
	마늘(깐마늘)	20kg	85,667	85,667	85,333	64,000	63,222	↑ 33.9	↑ 35.5
	양파	20kg	32,200	32,200	33,000	13,500	17,943	↑ 138.5	↑ 79.5
	대파	1kg	2,950	2,910	3,370	1,540	1,843	↑ 91.6	↑ 60.1
	파프리카	5kg	30,200	32,600	40,250	25,100	33,250	↑ 20.3	↓ 9.2
	멜론	8kg	27,600	26,400	26,650	27,850	45,550	↓ 0.9	↓ 39.4
	방울토마토	5kg	33,800	25,000	24,450	15,800	23,333	↑ 113.9	↑ 44.9
	수박	1개	16,600	16,400	20,700	14,550	16,668	↑ 14.1	↓ 0.4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6,000	37,000	37,400	41,367	51,840	↓ 13.0	↓ 30.6
	배(신고)	15kg	45,600	44,600	46,550	37,800	46,195	↑ 20.6	↓ 1.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07)	1주일전 (02/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8,000	568,667	↑ 0.2	↓ 7.0
	느타리버섯	2kg	10,000	9,400	15,050	11,350	10,977	↓ 11.9	↓ 8.9
	새송이버섯	2kg	9,000	8,800	10,950	8,725	8,748	↑ 3.2	↑ 2.9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56	8,008	8,205	6,486	6,026	↑ 24.2	↑ 33.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642	1,820	1,846	1,916	1,756	↓ 14.3	↓ 6.5
	닭고기	1kg	5,570	5,188	5,058	5,578	6,100	↓ 0.1	↓ 8.7
	계란(특란)	30개	5,095	5,527	5,498	5,850	5,542	↓ 12.9	↓ 8.1
	우유	1리터	2,549	2,549	2,548	2,548	2,359	- 0.0	↑ 8.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3. 0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12 천원	5,769 천원	4,147 천원	↑ 0.7	↑ 40.1
	거세	6,934 "	6,708 "	5,333 "	↑ 3.4	↑ 30.0
송아지 (6~7월)	암	2,802 "	2,693 "	1,479 "	↑ 4.0	↑ 89.5
	수	3,305 "	3,271 "	2,093 "	↑ 1.0	↑ 57.9
육우(600Kg)		3,639 "	3,342 "	3,547 "	↑ 8.9	↑ 2.6
젖소수송아지(7일령)		188 "	183 "	94 "	↑ 2.7	-
돼지(110kg)		340 "	314 "	371 "	↑ 8.3	↓ 8.4
육계(원/kg)		1,277 원	1,342 원	1,863 원	↓ 4.8	↓ 31.5
계란(원/특란10개)		867 "	939 "	1,250 "	↓ 7.7	↓ 30.6
오리(원/kg)		1,667 "	1,667 "	2,167 "	-	↓ 23.1

※ '14년 경영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개시

- 토양건강, 농산물 품질향상, 축사 악취제거에 탁월 -

- 나주시(시장 강인규)에서는 연간 200톤 생산이 가능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추고, 오는 3월 21일부터 관내 농업인에게 유상 분양한다.
- 공급되는 유용미생물 종류로는 각종 악취와 유해가스를 저감해주는 광합성균,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고초균, 뿌리발근 촉진 및 병원균을 억제하는 유산균, 토양 개량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모균 등 총 4종이다.
- 시는 사용 편리성과 부패 방지를 위해 2ℓ 단위로 소포장하여 5℃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내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에 리터당 300원에 공급한다.
- 미생물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 분양받을 수 있으며(공휴일과 수요일은 제외), 농가당 1주에 30ℓ, 연간 1,500ℓ(축산농가는 주 60ℓ, 연간 3,000ℓ)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 분양장소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친환경과학영농센터
  - 주 소 :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35-5(덕산리 542-51)
  - 문의전화 : 061) 339-7495
- 유용미생물을 농작물에 활용하면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으로 연작장해 경감, 병해충 감소, 당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으며 가축 사료에 혼합해 먹이면 면역력 증강, 육질 개선 효과, 악취 저감 등 축사 환경개선에도 탁월하므로, 나주시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나주시



##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개최

- 농업 6차산업, 매실 생산량 조절, 고소득 유망작목 발굴 등 -

- 광양시는 지난 25일 광양읍사무소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사업대상자와 2017년 예산신청 사업 등을 심의·확정했다.
- 심의회는 농정, 농산물 마케팅, 매실원예, 산림분야 4개 분과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사업과 공공사업을 포함하여 전체회의를 여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심의회에서는 2016년 사업대상자 확정 89건과 2017년 예산신청 사업 25건, 기타 1건 등 총 115건 33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 심의회 위원장인 정현복 시장은 금년에도 농업환경이 쉽지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 시장은 또 지금까지의 단순한 생산지원에서 농산물의 가공, 유통, 마케팅 지원으로 전환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에 주력하고, 시 대표작물인 매실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조절과 고부가가치화로 독보적인 위치를 굳혀 나가겠다고 하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를 고려한 고소득 유망작목 발굴 보급과 장기적으로는 아열대 작목으로 대체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광양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정현복 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업관련 기관단체, 농업인 등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농업 관련 사업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 보성군, 봄감자 일관파종기 중점지원

-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지역특화 작목 생산비 절감 -

- 보성군은 봄감자 조기재배 파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산지인 회천면, 득량면 일원에 감자 일관파종기를 중점 지원하여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 군은 매년 900여ha 면적의 감자 재배를 통한 조수입은 205억원에 달하지만, 최근 생산비 증가와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감자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진주)에서는 로터리, 두둑형성, 파종, 복토, 비닐멀칭 등의 수작업을 일괄 작업할 수 있는 감자 일관파종기를 보급하여 보성군 특화작목인 감자재배의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에 나섰다.
- 전문지도사를 통해 작업효과 분석결과, 감자 일관파종기는 트랙터에 감자 파종기를 부착해 파종 작업이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기존 990m<sup>2</sup> 면적당 11.4, 작업시간이 0.6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19배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지난해에는 득량면 비봉 일대에 생력기계화 단지 30여ha를 조성하여 파종기 등 생력농기계 10종에 16점, 선별장 호이스트 등을 지원했으며, 공동선별장을 신축하여 감자 생산 생력화를 위한 지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 출처 : 보성군

## ■ 해남군,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 관내 6,287농가 144만여 포 지원,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을 지원한다.
- 올해 해남군은 3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6,287농가, 1만 4,801ha 농경지에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 144만여 포(20kg/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가로 가축분 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5종을 지원한다.
- 비종별 지원 금액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별로 20kg 포대당 1,300~1,900원을 지원하며, 특히 유기질 비료의 경우 지난해 2천원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군비 1천원을 추가, 3천원으로 상향 지원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월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해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해 개인별 물량을 확정했다.
- 이에 따라 영농기 이전 지역농협을 통해 조기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기 살포로 농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 함평군,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접수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3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친환경농업 보조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나 농업법인이다.
-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등 6개 사업, 66억 천만원이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농약 지속직불제가 도비사업으로 신설됐다.
- 또 새끼우렁이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이 100% 보조로 상향된 반면, 저농약 농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 군은 올해 친환경인증 목표를 지난해보다 149ha가 늘어난 1,977ha로 확정해, 전체 경지면적의 15%로 확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군의 위상을 살리고 인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20억 7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농교육과 연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함평군



## ■ 장성군,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 학사농장에서 산다

- 학사농장 업무협약...소득향상·직거래활성화 등 기대 -

- 장성군 귀농인들의 농산물 판매가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농업인회관에서 유두석 장성군수, 강용 학사농장영농조합법인 대표, 조광철 장성군 귀농인협의 회장과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학사농장은 광주 수완지점에 지역 귀농인들이 생산한 표고버섯·방울토마토·사과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오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 더불어 장성군 귀농인협의회는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납품하기로 하고, '귀농인 농산물 구입 우수회원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들을 농장으로 초청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장팜파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군은 이번 협약으로 장성 귀농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납품처가 마련돼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용 학사농장 대표는 "귀농인들에게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자 체험행사, 직거래 장터 등도 연계해 장성군 귀농인들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유두석 군수는 “두 단체의 협약은 국내 최초의 협약으로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귀농 당시의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멋진 성과를 내 장성군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 한편, 장성군 귀농인협의회는 1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별 4개 지부로 나뉘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기술·유통정보 교류 ▲SNS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교육 ▲자원봉사대 활동 등을 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도 지난해 11월 학사농장 광주동천지점에서 열린 ‘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직거래장터’에서 약 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계기로 귀농인협회가 학사농장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루어졌다.

\* 출처 : 장성군

## ■ 해풍 맞은 완도 비파 첫 수확

- 면역력 회복에 좋은 웰빙 먹거리로 인기 -

- 완도군(군수 신우철)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기능성 완도 비파가 3일 첫 수확을 하고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
- 이날 군외면 망축리 비파이야기 농장(양동근)에서 첫 수확한 비파 30kg은 백화점에 납품됐다.
- 이번에 백화점에 납품한 비파는 무농약으로 재배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웰빙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비파과실은 황금색을 띠고 있으며 과즙이 많고 맛과 향이 뛰어나며 항산화, 피로회복 등의 효능을 갖춘 웰빙식품이다.

-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대중적인 웰빙 과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겨울에 꽃을 피우는 생명력이 강한 과수인 비파는 예로부터 ‘집 마당에 비파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집안에 의사가 2명’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허준의 스승이 암을 고치기 위해 사용했던 열매로도 이름이 나 있다.
- 비파 열매는 기침, 천식, 가래, 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갈증 해소 효능이 탁월하다.
- 비파 잎을 달여 차로 마시면 신경증을 완화하고 위장의 열을 낮추고 기억력 개선, 면역력 향상, 비만, 당뇨, 고혈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열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비파과일과 더불어 현재 개발되어있는 비파농축주스·비파잎차·와인 등을 홍보해 비파산업을 활성화시켜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완도군

## ■ 신안군, 「꾸지뽕」 정지·전정 현장교육 실시 ....

- 현지 맞춤 교육으로 주민들 호응 높아 -

- 신안군은 지난 4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통상실시권을 확보한 꾸지뽕 신품종 「대품」 재배기술 및 전정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꾸지뽕 1년생부터 5년생까지의 재배관리 요령 및 수형관리 방법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아성박사(농업연구사)가 강의하고

- 농가 포장에서 4년생 꾸지뽕 전정을 재배농가 60여명이 직접 실습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었다.
- 꾸지뽕은 속성수로써 잎과 열매·뿌리·줄기에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플라보노이드·루틴·모린 등의 성분이 있어 동의보감에 항암효과 및 혈당강하, 기관지 천식, 부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에 좋은 것으로 수록되어 있어 버릴 것 없는 기능성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을원)은 지역특화작목인 꾸지뽕은 식재거리 및 열매 수확이 용이한 수형을 잡아 과원을 조성해야 농가들의 일손을 덜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최근 FTA 등 영향으로 불안정한 마늘·양파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소득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지역특화작목 및 6차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



##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국산 신선농산물 인도 수출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6. 2. 29일 국산 사과·배·모과 등 신선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금년 4.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16. 2. 29일자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4품목(사과·배·모과·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그 동안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시장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2010년도에 사과·배·포도·파프리카를, 2015년도에는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 지난 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장 등)에서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 됨
-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혼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금번에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금번 사과·배 및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참고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로 맥아·면화·무종자·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으로 수출해 왔다.
-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선제적인 검역협상으로 대중국 쌀 수출 등 해외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정부 3.0 유능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딸기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국산 매향 딸기, 싱가포르로 선박 수출 성공

-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적용... 수확 후 15일까지 상품성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을 국산 딸기 ‘매향’ 품종에 적용해 선박 운송으로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했다.
- 농촌진흥청은 경남 진주에서 생산하는 딸기 '매향' 품종을 수확한 직후 이산화탄소 처리한 뒤 지난 2월 6일 싱가포르에 선박으로 시범 수출했다.
- 익은 정도가 착색도 기준으로 약 70%인 딸기를 수출용 밀폐 용기(챔버)에 넣고 저온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30%에 맞춰 처리한 뒤 3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수출 길에 올랐다.
- 딸기는 수확 후 11일째 싱가포르에 도착해 12일째부터 현지에서 유통됐다. 유통된 딸기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가 증가됐으며, 물러짐도 덜 해 수확 후 15일까지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싱가포르까지도 선박으로 안정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 비용면에서는 딸기 수출 지원비를 고려했을 때, 선박 수출이 항공 수출에 비해 평균 3분의 1 정도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 국내산 딸기는 해마다 홍콩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 3,063톤(3,159만 9천달러)에서 2015년 3,313톤(3,295만 4천달러)으로 약 8% 증가했다.
- 싱가포르는 국내 딸기 수출국 중 2위로, 2015년 수출량은 1,083톤(1,041만 2천달러)으로 2014년 1,121톤(1,107만 5천달러)보다 3.4% 줄었다.

- 이는 다소 기온이 높았던 지난해 11월, 항공 수출 시 저온 수송이 어려워 상온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품질이 떨어져 수출업체들이 비교적 먼 거리의 싱가포르 수출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선박 수출은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운송 중 딸기 품질이 유지되며, 운송비 절감과 대량 수출, 다른 신선농산물과 함께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항공 수출보다 운송 기간이 길어 유통 중 품질 유지가 관건이다.
- 이번 선박 수출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확 후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아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운송 중 환경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했다.
-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이산화탄소 처리 전용 장치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이 같은 패키지 기술을 보급한다면 국산 딸기의 선박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연구팀 최현진 농업연구사는 “주요 수출 품종인 ‘매향’ 딸기에 수확 후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품질 유지 기간이 15일까지 늘어 아시아 주요 수출 국가에 선박으로도 수출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포도와 참외·감귤 등 다른 농산물에도 선도 유지 연장 기술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선박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 NH무역, 농협쌀로 만든 즉석밥 ‘집밥’ 첫 수출 개시!

- 3월 3일 미주·캐나다 등에 본격적으로 수출 시작 -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 농협경제지주의 계열사인 NH무역(대표이사 김청룡)은 수출을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쌀을 이용한 즉석밥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3일 미주·캐나다 지역으로 첫 수출을 시작하였다. 현재, 지난해 쌀 과잉생산 및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쌀 생산 농업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에 수출되는 쌀 가공제품은 전북 남원농협에서 생산한 우리쌀을 즉석밥 형태의 가공제품(브랜드 ‘집밥’)으로 개발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미주 서부지역 및 캐나다 등의 대형마트에 입점할 예정이며, 초기 계약물량 50톤 중 1차 수출분 14톤(210g ×2,800박스)이 3일 선적되었다. NH무역은 이번 미주지역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유럽·호주 등 세계 각 국가로도 쌀 가공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국내쌀의 수급안정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금년에 일반양곡은 물론, 쌀과자·급식밥 등 쌀가공품을 적극 개발하여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 우리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NH무역은 지난 1월 중국지역으로 우리쌀 30톤을 수출 한데이어, 2월에도 동송농협 철원 오대쌀 36톤을 수출한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對중국 쌀 수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농협중앙회

##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연중생산 관리기술 매뉴얼 발간

- 억제재배 기술개발로 겨울철 농가 소득향상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연중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이라는 매뉴얼을 발간해서 재배 농가에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연중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현장에서 재배농가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합기술 매뉴얼을 제작했다.
- 매뉴얼에는 단호박의 국내 재배현황 및 전망, 수출입 동향, 일반적인 단호박 재배방법은 물론 무가온 하우스 재배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록하였다. 세부적인 기술로는 무가온 하우스 재배에 적합한 품종, 재배작형, 고온기 평야지 육묘방법, 줄기 유인방법 및 형태, 첫 번째 과일 착과절위 및 마지막 적심 위치, 주요 병해충 방제방법, 생리장해 대책 등 재배기술과 재배작형별 수확 후 관리기술에 관한 생육단계별 시험결과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여 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호박은 1인당 소비량이 2000년 0.2kg에서 2015년 1.5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구입 비중도 높아 소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621ha에서 2014년 2,000ha를 수준으로 연평균 17% 가량 확대되었으며 이중 전남은 635ha로 전국 면적의 약 31% 점유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단호박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생산시기 이동을 위한 재배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전남은 기후적 강점을 이용한 무가온 하우스 재배를 시작하여 해남을 중심으로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봄재배 73ha, 가을재배 3ha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된 무가온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연중생산 기술을 적용할 경우 농가소득은 10a당 728만원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미향 연구사는 "이번 책자는 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농가뿐 아니라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단호박 품질 향상 및 연중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단호박을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수입 단호박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을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단감 과수원 밀거름, 신경 쓴 만큼 ‘득’된다!

- 토양검정 결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부족분 보충해 주어야 -

- 단감재배에서 밀거름은 감나무의 새가지 생장과 과실비대를 촉진하고, 지력을 유지하여 과실 품질에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올해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나무 세력, 유기물의 양분 특성, 토양 성질 등을 잘 살펴 밀거름을 시용할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 감나무는 나무키가 높아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대부분의 감 재배농가에서는 강제로 키를 낮추어 재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료 사용 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세력이 강해져 과실의 당도, 착색 등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 따라서 강전정으로 세력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나무는 밀거름 살포량을 정상나무보다 1/3 이하로 줄였다가 여름철에 세력을 보아가며 웃거름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밀거름으로 유기물을 많이 했다면 화학비료 주는 양은 줄여 주어야 나무 세력이 안정된다.
- 유의할 점은 이때 사용하는 유기물 중에 축산 부산물퇴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토양에 인산 성분이 과잉될 수 있고, 반면 대두박, 유채박 등 유기질 비료는 질소 함량은 높지만 인산과 칼리 함량은 낮아 유기물 공급 효과가 적다. 따라서 유기물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균형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 농업기술원은 좀 더 과학적인 비료사용량 산정을 위해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토양검정 결과를 참고하되, 해마다 시용해 오던 비료 사용량과 나무 세력, 토양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토양검정 결과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은 토양산도(pH)가 적정 범위(6.0~6.5)에 있는지, 유기물 함량이 적절(2.5~3.5%)한지, 인산, 칼리 등 특정 성분의 과잉 또는 부족 여부 등이다.
- 특히 지난해 pH가 낮은 과원에서는 녹반증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단감 과수원에는 석회를 적절히 살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 첨단 냉·난방 패키지 기술로 고온기·혹한기 극복한다

- 유리온실에 첨단 냉·난방 패키지 기술로 에너지 절감 효과 인정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시설원에 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 여름철 고온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온실 에너지 절감 냉·난방 패키지 기술을 개발해 평가하는 자리를 3일 시설원예연구소(경남 함안)에서 갖는다.
- 이번 현장평가회에는 시설원예 농업인, 연구·지도기관,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실 에너지 절감 냉·난방 패키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효과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시설원예 재배 농가는 경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로 높은 편이다. 특히, 겨울철 고온성 수출 작물은 난방비가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냉방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냉·난방 패키지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의 겨울철 난방용과 여름철 냉방용 패키지 기술이다.

- 겨울철 난방용 패키지 기술은 '알루미늄 다겹보온커튼+침단 하이브리드 난방시스템+근권난방'이며, 여름철 냉방용 패키지 기술은 '알루미늄 차광스크린+침단 하이브리드 냉방시스템+포그시스템'이다.

<난방용 패키지 구성 사진>



알루미늄 다겹보온커튼



하이브리드 난방시스템



근권난방

<냉방용 패키지 구성 사진>



알루미늄 차광스크린



하이브리드 냉방시스템



포그시스템

- 현재 비닐하우스에는 다겹보온커튼 장치가 보급되고 있으나 유리 온실에서는 각종 환경 조절 장치와 유인선 등으로 설치가 어려웠기에 이를 보완해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었다.
- 근권난방은 식물의 뿌리 부위에 온도를 높여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 패키지 기술 중 특징적인 것은 지열, 공기열, 태양열, 온실 내 태양 잉여열을 외기 온도를 고려해 선택적·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침단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로 온실 환경을 관찰하고 원격제어할 수 있다.

- 이 패키지 기술은 현재 경상남도 함안군의 시설원예연구소 시험포장 1,000m<sup>2</sup> 유리온실에 적용해 가동 중이다.
- 겨울철 시험 결과에 따르면, 유류난방 대비 난방비 절감 효과는 2015년 파프리카 재배 시에는 87%, 유류 가격이 저렴해진 2016년 토마토 재배 시에는 71%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여름철 파프리카 재배 시에는 자연환기 온실에 비해 온실 내 온도가 4~5℃ 낮아지고, 온실 내 환경이 좋아져 파프리카 수량이 약 7%로 늘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전종길 농업연구관은 “최근에는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시설원예농가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냉·난방 패키지 기술을 통해 여름철 고온 극복과 겨울철 난방비 절감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작물재배 안정화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딸기 단동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현장평가회

- 난방비 절감, 채광량 개선, 고온기 냉방까지 세 마리 토끼 잡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에너지 절감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2월 26일 장성 진원면 딸기 수경재배 농가에서 딸기 단동하우스에 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패키지 기술 모델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지속적인 일조부족 및 저온으로 시설하우스 작물작황이 좋지 못하고 난방비는 늘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겨울철 시설재배 생산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으로 시설원에 농가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이번에 선보인 패키지 기술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개발한 그림자가 지지 않아 채광량을 늘릴 수 있는 상부개방형 다겹보온 커튼과 냉수와 온수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축열식 공기열 히트펌프이다.
- 겨울에는 저비용 난방을, 봄과 여름에는 냉수를 이용한 냉방으로 고온기에 딸기 생산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패키지화한 기술이다.
- 이 시스템의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효과는 동일기간 대비 등유보일러에 대비 약 81% 절감되었으며, 채광량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상부 개방형 보온커튼은 최근 많이 보급된 권취식 보온커튼에 비해 채광량을 약 12%가량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난방비는 겨울철 시설원에 경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패키지화해 활용한다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올 한해! 딸기농사 시작은 지금부터..

- 어미모 아주심기는 3월 중순까지 마무리 해야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금년 9월 정식묘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어미모(모주) 아주심기를 3월 중순까지는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 현재 전남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시설 재배면적은 638ha로 이중 90% 이상이 '설향'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우량묘 생산이 중요하다. 9월 중순경 본 포장에 심을 경우 10월 상순경 대부분 첫 번째 꽃대가 나와 정상적인 생육을 한다. 하지만 어미모 심는 시기가 늦어 묘소질이 나쁘게 되면 정상적인 생육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딸기 우량묘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탄저병, 시들음병 등에 감염되지 않는 건전한 어미모를 사용해서 3월 중순까지는 가급적 빨리 심는 것이 어미모의 활착과 아들모 발생이 좋다. 바이러스 등 병에 감염된 어미모와 모의 성능이 좋지 않는 4년 이상된 어미모를 사용할 경우 묘소질이 떨어져 과일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건전한 어미모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딸기육묘전문영농법인체에서 구입, 사용하고 어미모가 부족하면 어미모의 첫 번째에서 발생한 충실한 1차 아들모를 선택해서 어미모 이용도 가능하며 세심한 육묘 관리가 필요하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모주(원원묘)를 '11년부터 딸기원묘증식사업과 딸기육묘전문영농법인체에 매년 5만주씩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 자체 자가묘에 비해 보급묘가 묘소질이 뛰어나 과일 모양이 좋고, 수량이 18% 증수되어 농업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육종연구팀장은 '딸기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량 모주를 확보해서 육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량 보급묘를 11월쯤 딸기육묘전문영농법인체에 보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양파 노균병균, 월동 후 제때 방제 중요

- 4월 상순부터 약제 방제... 월동기 노균병균 판별 기술도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양파의 주요 병해인 노균병을 제때 방제해 올해 안정적인 양파 수확량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양파 노균병에 감염된 식물체는 겨울을 난 후 생육기 동안 식물체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해 농가에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다
- 양파 노균병은 크게 1차와 2차 노균병으로 구분하는데 1차 노균병은 겨울을 나기 전에 감염돼 이듬해 2~3월에 발생하고, 2차 노균병은 4월에 주로 발생한다.
- 올해는 겨울을 나기 전에 잦은 강우로 양파가 웃자람과 습해 피해를 입으면서 겨울 동안 노균병균 감염이 확인돼, 1차 노균병뿐만 아니라 2차 노균병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양파 2차 노균병 방제를 위해서는 월동기 이후 제때 약제를 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노균병 포자는 2~3월 중 5일간의 평균 기온이 8~10℃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다가 4월 상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노균병 약제 방제의 알맞은 시기를 조사한 결과, 4월 상순 첫 방제를 시작해 7일 간격으로 3회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방제할 경우, 이병주율 1.3%, 포자발생주율 0.01%, 이병엽률 8.4%로, 무방제 시 31.3%(이병주율), 17.4%(포자발생주율), 51.6%(이병엽률)보다 월등히 낮았다.
- 약제 처리를 지나치게 빨리할 경우, 주 전염원인 1차 노균병 피해주에서 병원균 발생이 충분하지 않고, 4월 하순 이후 늦게 방제를 시작할 경우 이미 노균병균이 식물체 조직 내에 침입해 효과가 낮았다.
- 월동기에 양파 노균병이 재배지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해 병징이 나타나기 전에 월동기 1차 노균병 감염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양파 노균병균(*P. destructor*)을 검출하기 위해 중합 효소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방법(PCR)을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6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 지난해 11월 26일 아주심기한 전남 무안군의 양파 재배지에서 12월 4일부터 3주 간격으로 양파 잎을 채취해 검정한 결과, 12월 초부터 노균병균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양파 노균병 상습 발생지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양파 노균병균이 존재하므로 겨울나기 전·후로 방제 계획을 세워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마늘썩 꺼낼 때, 저온피해 조심하세요

- 웃자라기 전 제때, 맑고 따듯한 날 작업해야 피해 줄여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늦겨울에 접어들면서 기상 변동이 심해 마늘 출현기(마늘썩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시기)에 동해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의 방지를 위하여 유인작업 시기를 잘 결정하여 특별히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는 마늘 재생기에 해당되는 1월 중순 이후 기온이 전년도 보다 3.4℃, 평년 대비 1.1℃ 낮고, 강수량이 적어 마늘의 출현 시기도 다소 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비닐 속에서 출현된 마늘은 햇빛이 강하면 비닐 안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웃자랄 염려가 있다. 웃자랄수록 동해피해는 커져 제때에 마늘썩을 꺼내주어야 하는데, 잎이 2~3매 전개되어 길이가 10cm 정도 되었을 때가 적당한 시기이다. 마늘 썩을 비닐에서 꺼냈을때 갑자기 저온에 노출되면 피해가 발생된다.
- 피해증상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잎 끝부터 흰색으로 말라 결국 엽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마늘썩 꺼내는 날은 맑고 따듯한 날이 2~3일 계속되는 바로 전날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작업은 비닐을 뚫어 썩을 위로 올리고 마른 흙으로 뚫었던 구멍을 되 메워 주어야 한다. 구멍을 제대로 메우지 않으면 찬 공기가 들어가 생육이 더디고 비닐 날림과 잡초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배수가 불량한 포장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가뭄에 대비해 관수시설을 점검해 놓아야 한다. 배수로 정비는 물고인 지점을 미리 알아 두었다가 흙이 마른 후 높은 곳에 위치한 흙을 낮은 쪽으로 메워주는 식으로 하면 일도 쉽고 덩어리가 안 생겨 좋다.
- 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 정재현 연구사는 “작년 마늘 파종 이후 기온이 높고 토양수분이 충분해 발아가 촉진되어 출현율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월동 전 출현돼 웃자란 포장에서는 싹 꺼내기 2~3일 전에 미리 바람구멍을 내어 저온에 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 8. 정책 동향

### ◆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 사업추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기식품의 산업기반 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기농산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기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출하하는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4백만원씩 전액 지원(46개소, 184백만원)한다.
-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16. 3.월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홈페이지와 선정된 컨설팅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3월중 컨설팅사 우선 공모)
- 신규인증은 유기식품 컨설팅 업체로부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국내·외 20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부터 취득해야 한다.
- 이와 연계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수출을 계획·확대하고자 하는 유기가공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 수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수출에 필요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 진단, 제품의 생산실태와 경영능력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마련을 현장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 '16년도 사업비는 개소당 2천만원(70%보조)으로 5개소, 7천만원이며, 신청방법은 위의 신규인증 컨설팅 사업과 동일하다.

- 농관원에서는 2011년부터 소비자의 고품질 농식품 소비 확산 추세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은 650개 업체에서 4천여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3년 대비 업체수가 231개소 증가하여 증가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 \*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법26조)
-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유기농산물의 안전한 가공과 유통, 수출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기식품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코스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음식관광의 소재로써 경쟁력이 있는 식재료를 테마로 하는 음식관광 코스를 발굴하여 발표했다.
- 이번 발표는 쇼핑위주의 저가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음식관광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획하였다.
- 외식트렌드, 외국인 관광객의 니즈(Needs)등을 고려하여, 음식관광의 소재로써 활용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선별하고, 소재별로 제안된 여행상품안을 대상으로 여행사 등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되었다.



- 이번에 음식관광테마로 선정된 식재료는 메밀·콩·인삼/홍삼·한우·흑돈·약초/산채·쌀·소금·김·굴이다.
-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 코스는 메밀(평창)·콩(파주)·인삼/홍삼(금산/진안/부여)·한우(마장동)·흑돈(제주)·약초/산채(전주/지리산)·쌀(여주/이천)·소금(태안/신안)·김(홍성, 광천)·굴(통영/거제)
-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된 식재료 음식관광 테마 및 음식관광 여행상품코스가 지역별 'K-food 로드'개발 및 음식관광 신상품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 각 식재료의 출하시기 및 제철 음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달의 음식관광테마'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쉐프와 연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식재료 음식관광 테마를 바탕으로 한 음식관광의 가치제고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식품 및 한식문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식세계화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며,
- 향후, 외국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식재료 투어상품과 같이,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음식관광의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의 확산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9. 해외 농업정보

### ◆ 건조한 기후 탓에 우크라이나 2016/17년 밀 수확 20% 감소 전망

- 2016/17년 우크라이나 밀 수확이 건조한 기후로 인해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1,900만~2,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 여름과 가을동안 심각한 가뭄은 우크라이나 곡물 곡창 지대 절반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겨울 곡물 파종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 현재에 이르렀다.
- 흑해지역 주요 곡물 및 대두 수확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Veles-Agro의 Viktor Korobko는 전했다. 그는 밀과 유지류 생산 감소는 파종기 가뭄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밝혔다.
- Korobko는 우크라이나 밀생산에 대해 2016년 6월까지 2,500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 유지류 생산은 약 100만톤으로 지난해 160만톤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한편 이번 달 늦게 파종된 옥수수과 해바라기는 파종 시기에 내린 비로 파종은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약 두 주간 따뜻한 기후가 예보되고 있어 생육을 방해할 것을 우려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 계란값 10년새 2배 이상 켜중, ‘가계부에 주름살’

- 장바구니 물가가 현기증 나는 속도로 치솟고 있다. 개스값 전국 평균치가 2년 전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계란·육류·빵 등 기본 식료품 가격은 지난 10년 사이에 최소 40% 이상 뛰어올랐다.
- 소비자 가격지수(CPI)로 측정한 전국 식품가격은 2005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기간 31.5%의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같은 기간의 전체 물가상승률을 압도했다.
- 2005~2015년 사이에 계란값은 2배 이상 오르며 기본 식료품 가운데 최고의 상승률을 작성했다.
- 식료품 가격의 급등세를 불러온 원인은 다양하다. 조류독감과 돼지 유행성 설사증 바이러스로 수백만 마리의 산란계와 육돈이 대량 살처분 되면서 계란값과 베이컨·소시지 가격이 치솟았다.
- 미국의 곡창지역을 강타한 심각한 가뭄과 홍수도 농작물 가격을 밀어올린 주범으로 꼽힌다.
- 식료품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반 가정의 식비부담을 늘리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 실제로 식당들은 이윤감소율을 축소하기 위해 최근 손님들의 식탁에 올리는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전체 메뉴를 바꾸는 등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렸다.

-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론 식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보전에 한계를 느낀 요식업체들은 인력조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 식료품가격 인상의 파급효과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가격상승을 주도한 가격급등 원인이 무엇인지 연방노동통계국(BLS)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가장 많이 오른 장바구니 품목은 계란가격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110% 상승하며 BLS가검토한 300개 식료품 가운데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 계란값은 조류독감 발병으로 수백만 마리의 산란계(egg-laying chickens)가 살처분 된 2015년에 정점을 찍었다.
- 조류독감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계란값은 다른 식품비의 상승속도를 앞질렀다. 현재 가격은 지난해 8월의 고점에서 평균 13.8% 하락한 수준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3. 07.(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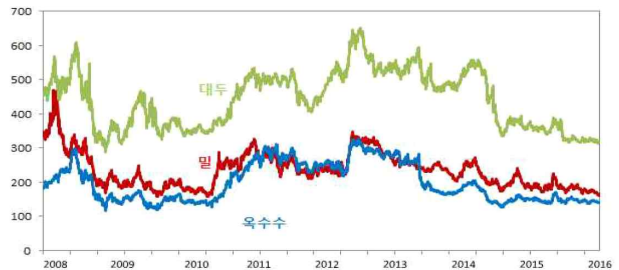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가격, 섯커버링과 기술적 매수시그널로 상승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3.4)	전일대비	전월평균 ('16.2)	2015 평균
밀	167.03	▲0.3%	169	186
옥수수	139.52	▲0.2%	143	148
대두	319.81	▲1.7%	320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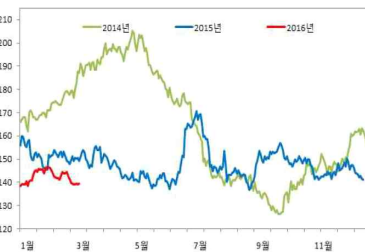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 남부평야 밀지대의 건조한 기후로 인한 우려로 인해 섯커버링세가 몰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섯커버링세로 상승 여력이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밀과 대두의 공급 과잉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제한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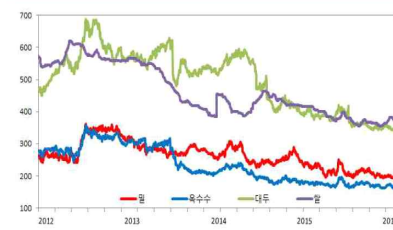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섯커버링과 기술적 매수 시그널로 연일 상승하고 있음.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 브라질은 현 대통령의 부패 연루로 탄핵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브라질 통화는 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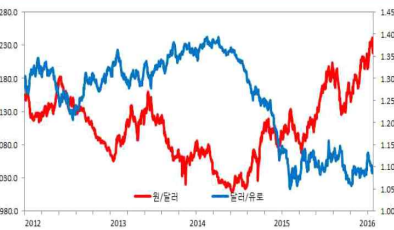
### 관련동향

- 최근 맥각균 때문에 이집트 검역당국에 의해 거부된 밀 화물은 유럽 연합에 재수출
- 국제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미국 원유 시추기 수 감소, 미국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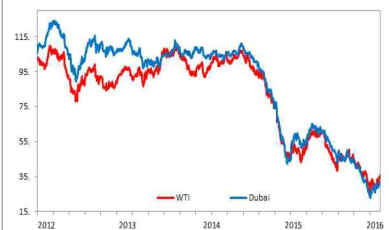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2	▲2.1%	환율	원/달러	1,219	▼1.1%
	옥수수	157	▼1.4%		달러/유로	1.095	▲0.7%
	대두	333	▲0.2%	국제유가	WTI	35.92	▲3.9%
	쌀	370	—		Dubai	32.17	▲0.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3.3(수출가격), '16.3.4(환율), '16.3.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뚝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25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농가 부담 가입액의 20% -

- 전라남도가 3월 25일까지 가입 대상인 뚝은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특화품목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농민가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총 50개 품목 가운데 임산물 지원 대상은 뚝은감·밤·대추·표고버섯·복분자 5개다. 밤과 대추는 4월, 표고버섯은 6월, 복분자는 11월에 가입할 수 있다.
- 이번 가입 대상인 뚝은감 재해보험은 해당 작물을 1천㎡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 80%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뚝은감 재해보험은 과실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등에 따른 과실 손해를,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 및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나무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 뚝은감 가입 건수는 2010년 926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2천 599건이었다. 시·군별로는 영암 786건, 광양 536건, 나주 409건, 구례 266건 순이었다.
-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상기후로 지난해 3월 뚝은감 냉해피해가 있었고, 11월 가을철 지속적 강우로 노지 표고버섯 썩음 현상, 꽃감 떨어짐 현상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빈도가 늘고 있다”며 “재해복구비는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차원의 예비비 성격인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임업 경영 안정장치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올해 총 50개 품목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국비와 도비 등 총 70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 소비자가 공감하는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응모하세요!

- 농촌진흥청, 제2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한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자 ‘제2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공모전 주제는 ‘소비자가 공감하는 농특산품 포장디자인’이며, 대상은 농촌마을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다.

- 응모기준은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이야기와 농특산품의 매력을 포장디자인에 녹여내 지역 명품화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서,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독창적이고 차별성 있게 부각한 농특산품 포장디자인이다.
- 응모 시 참가신청서와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설명서, 포장재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www.naas.go.kr](http://www.na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며, 농촌환경자원과(전화 063-238-2663)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한 포장디자인은 서면과 실물 심사를 통해 주제 적합성과 자율성, 창의성, 상품성, 완성도, 효과성을 검토한 뒤 5월 16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 총 11개 작품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포장디자인 분야 우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6월 8일부터 19일까지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우수기획전’도 열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안옥선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우수사례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농업 현장에 확산해 농업인의 디자인 의식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영농철 앞두고 농기계 무료로 정비하세요

- 전남도, 4월 1일까지 농업인 불편 해소 위한 순회 수리봉사 -

- 전라남도는 봄철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점검·정비해 농업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한 달여 동안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 농기계 수리봉사는 트랙터와 이앙기, 관리기 등 봄철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 수리봉사반은 국내 5개 농기계 제조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전국 순회 수리봉사반'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자체 순회 수리반'으로 운영된다.
- 전국 순회 수리봉사반은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텍, LS엠트론 등 농기계 제조업체 7명의 전문 수리기사로 편성됐다.
- 수리봉사는 7일 해남·장흥·보성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봄철 농기계 사용이 많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이 기간 동안 농기계의 일상적 점검수리는 무료로 이뤄진다. 또 현장 수리가 어려운 경우 생산업체 등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해 수리하고 주요 부품 교체 시 대금은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 또한 간단한 고장은 사용 농업인이 스스로 고치도록 응급처치 방법과 함께 수리봉사 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기계 수리봉사는 봄 영농철 이전에 저비용으로 고장 농기계를 점검수리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영농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농기계를 미리 점검하는 등 이번 수리봉사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지역에는 경운기 8만 5천 784대, 트랙터 3만 7천 66대, 이앙기 2만 4천 669대, 콤바인 1만 1천 124대 등 총 25만 5천여 대의 농기계가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7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